

# “수행환경 좋아졌는데 공부는 더 안해”

## 백운 스님 (미륵사 회주)

부산 구포역에 내리니 비가 흠날렸다. 봄비라고는 하지만 봄에 와 닿는 바람은 차가웠고 신신스러웠다. 스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는 지금 바람 불고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 올라오기가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시면서 길을 잃을까 염려되어 보살한 사람을 내려 보냈다고 하셨다. 마중 나온 보살의 차를 타고 미륵부처님이 상주한다는 미륵사로 향했다. 금정산 조입을 벗어나자 누군가 무심하게 부러 놓은 것처럼 커다란 바위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금정산을 일러 ‘천 마리의 거북과 만 마리의 자라가 뒤덮고 있다’ 하여 천구만별(天龜萬鱗)이라 불리는 그 연유를 알 것 같았다. 비포장도로 한참을 달린 차는 바리케이드가 쳐진 곳에 멈추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

미륵사 보살은 준비해온 비웃을 내밀었다. 비웃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차에서 내렸지만, 세찬 비바람에 금방 기가 꺾여버렸다. 맑은 날에는 빠른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지만, 이런 날에는 한 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했다. 산길을 조금 올라가자, 바람은 돌풍으로 변해 세상을 삼켜버릴 듯 거세었다. 거센 바람소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귀청을 때렸다. 바람소리는 금정산의 나무들이 저마다 내지르는 아우성처럼 들리기도 한다. 문득 전기가 튀어오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12kg이 넘는 카메라 가방을 매고서 걷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를 절로 착각하여 다 온줄 알고 좋아했는데, 가까이 가 보니 바위덩어리였다. 온 몸은 비에 흠뻑 젖었고, 얼굴을 타고 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원효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험난한 곳에 절을 세운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 원효 스님은 ‘삼계(三戒)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라 했다. ‘일체 분별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이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얻을 만한 상(相)이 없다’고 했다.

비바람을 뚫고 미륵사에 도착하니 돌 속에 지은 ‘염화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염화전 뒤편의 거대한 바위는 스님이 좌선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좌선바위’로 불리고 있다. 이 좌선바위 뒤편에는 미륵불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이 두 바위를 조합해보면 스님이 미륵불을 향해 좌선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 하니 원효 스님의 남다른 인목이 놀랍기만 하다.

백운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이 우중(雨中)에 볼 것도 없는 산승을 뭇 하려 만나려왔느냐고 핀잔을 준다. 스님은 다리로 불편하신데 이 험난한 산길을 어떻게 오르내리시냐고 했더니 “죽을 맛이여!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싫어!”라면서 웃으신다. 요즈음 은사인 동산 스님의 일대기를 집필하고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 전에만 못하단다. 삼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한쪽 수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땐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족이 자유롭지 못해서 한동안 글도 못쓰고 고생했지만, 이제 그러저러 회복되었다고 한다.

백운 스님의 방에는 책상 양 옆으로 붓글씨로 청산(靑山), 백운(白雲)이라고 써서 붙여놓았다. 어디에서 살든지 푸르른 산에 말없이 걸렸다가 말없이 지나가는 흰 구름처럼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아니겠는가 싶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자리가 와도 “난 주지 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야. 강원에서 17년간 강주 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마음공부 해야지” 하면서 마다했기에 범호처럼 하늘의 뜬구름처럼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

백운 스님은 17년간 화엄사, 범어사, 송광사 등 큰 절의 강주로 지내온 강백이자, 불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스님의 신분으로 소설을 쓴 소설가이다. 서산 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은 관양언기 선사 일대기를 기록한 <양치는 성자>는 백운 스님의 첫 작품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편양 선사는 깨달음을 증득한 후 오랫동안 보림 기간을 통해 양치기와

거지왕으로 자비행을 실천한 독특한 이력의 스님인데 이러한 행적이 백운 스님에게는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기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백운 스님 또한 소탈하고 꾸밈이 없다. 백운 스님은 한국 불교사에 자취를 남긴 선사들의 이야기를 소설이나 전기 형식으로 엮어내고 있는데, 펴낸 책을 꼽아 보면 <백과 선사> <진묵대사> <성월 대선사> <부설 거사> <만암문집> <인곡문집> 등이 있다.

스님은 범어사 5대 중창주인 성월 스님의 일대기인 <성월대선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동산 스님을 4년 정도 시봉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 서 성월 노사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용성 스님의 범맥을 이어받았지만, 성월 스님도 은사와 닮았기에 동산 스님 일대기보다 먼저 펴냈다. 김구 선생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성월 스님이 대한민국 독립자금 제일 많이 낸 분이라고 하데,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어.”

소설을 비롯하여 이런 글을 쓰게 된 원천이 어디

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에게 내 사주를 물었더니, 열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겠다는 얘기가 나왔어. 단명할 사주를 바꾸려면 절물을 먹으면 된다고 해서 다섯 살에 화방사에 들어가서 아홉 살까지 살았어. 그때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방선하고 나서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면 원효 스님, 사명 대사, 오조 범사 등 고승들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때 들은 것이 바탕이 되었겠지.”

열다섯 살까지 절물을 먹어야 하는데 육년을 앞세워 나왔더니 죽을 고비를 여섯 번이나 넘겼다고 하시면서 인과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6·25 한국전쟁이 난 다음 해에 제2대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던 아버지는 땡깡이에게 학살당했고, 백운 스님도 그 여파로 세 번이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때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살려주었다. 그 후 한 번은 녹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화약을 먹었는데 회중이 위장을 뚫고

올라와서, 또 한 번은 교통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뻔했는데 용케도 살아났다고 했다.

“사람들이 인과법을 무시하고 합부로 사는데, 어느 생애서라도 다 받게 되어있어요. 인과에 대한 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여쭈었더니 동산 스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서리 이고 있는 소나무의 깨끗한 지조(霜松潔操) 물속의 달은 웃기이 비었더라!(秋水虛櫺).

“동산 스님께서 이런 글귀를 좌우명으로 삼아 벽에 써놓고서 평생을 수행자로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저는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은사 스님께서 감인대(鑑忍待)의 가르침을 주셨듯이 견디고 참으며 기다렸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백운 스님은 동산 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총독부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의술공부를 하였던 동산 스님은 우연히 용성 스님을 뵈게 되었다. 그때 용성 스님께서 “인간의 신명은 의술로 고친다지만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고치겠소?”라고 묻는 말 속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그 후 “불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병을 고치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것이 출가의 동기가 되었다.

해방이 되던 해 우리나라 불교는 왜색불교의 혼탁으로 독신 수행 승려보다 취처를 한 승려가 더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산 스님은 오로지 정진으로 일관했다. 또한 참선남자들을 지도했으며 130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동산 스님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일화를 재미나게 들려주시기에 “스님은 정말로 소설가 기질을 타고 나셨다”고 했더니 빙긋 웃으셨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속시간보다 늦게 유엔군 사령관과 외국의 외교사절들과 함께 범어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잠재도 않고 중절모를 벗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광경이 동산 스님의 눈에 들어왔다. 평소의 곱은 성품대로 동산 스님은 호통을 쳤다.

“소위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불전에 와서 중절모 쓰고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은 어디서 배운 예의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인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면서 즉석에서 사죄하고 법당에 삼배를 했어. 그러면서 ‘내 김구 선생한테 호통을 들었잖아, 이처럼 큰소리 듣기는 스님이 처음입니다’라면서 스님을 존경한다고 했어. 이 인연으로 뒷날 내무부장관이었던 백성욱 박사를 내려 보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그 후로도 두 번이나 경무관을 보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은사 스님은 그때마다 ‘나는 산밖에 모르는 사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4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치침)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 2. 교육내용

- ① 송 수 편 (도량서,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 720-1836, 733-1959

##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마가목 가지로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입장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